

서울은 주방 매트 브랜드 '칠리위치' 설립자 샌디 칠리위치

난 뭐든 바꿔보는 호기심녀 ... 비닐로 짠 식탁매트로 대박났죠

획기적인 아이디어란, 알고 보면 출발은 간단하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남과는 다르게 '뒤집어 보는 눈'이다. 식탁 매트 브랜드 '칠리위치'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인 샌디 칠리위치(61)의 경우도 그렇다. 그는 '식탁 매트'는 천 소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뒤집고, 야외용 가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비닐로 식탁 매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장본인이다. 지난달 27일 방한한 샌디 칠리위치를 서울 노원동에 있는 리빙 편집숍 더플레이스에서 만났다. 매트라는 평범한 주방용품 하나로 성공한 비결을 묻자 그는 "호기심 많은 성격 때문에 재미처럼 시작한 일들이 행운의 사업 아이디어가 됐다"고 말했다.

글=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사진=권혁재 사진전문기자 shotgun@joongang.co.kr

중국 신발 염색해 신었다니 "어디서 샀니"

"난 늘 '바꿔보기'를 좋아했어요. 기존에 쓰이던 방식 말고 색다르게 사용해보면 어떨까, 상상하는 걸 좋아했죠."

칠리위치의 '행운을 부르는 호기심'의 역사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물일곱 살이던 칠리위치는 주얼리 디자이너로 일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조각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그 방면에 남다른 감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죠."

뉴욕의 중국인 상점에서 산 신발도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발레슈츠처럼 생겼는데 하피족 예술가들이 즐겨 신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검은색밖에 없는 거예요." 미술 학교 선생이던 친구와 함께 검은색 신발을 탈색한 뒤 빨강·노랑 염색을 했다. 그저 남들과는 다른 색깔의 신발을 신고 싶어서 한 일인데 "어디서 샀느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았다. 재미 삼아 한 일이 사업으로 커졌다. "중국에선 장례식 때 똑같이 생긴 하얀 신발을 신는다고 권요. 그걸 2만 원에 수입해 다양한 색으로 염색해 팔았죠."

당시 '보그'를 비롯한 패션지에서 알다투어 '새로운 패션화'로 소개됐다. 내친김에 검은색밖에 없는 데인인 있었던 스타킹 염색도 시작했다. '휴(HUE)'라고 브랜드 이름을 짓고 법인도 설립했다. 칠리위치는 "호기심이 사업으로 커진 데는 아버지의 조언이 컸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리이에서 회계를 수입하는 사업가였다.

천으로 그릇 만든 '레이보울' 디자인상

99년에 아이용 소풍 그릇을 고민하다가 흥미로운 소재를 발견했어요. 야외용 가구를 만들 때 쓰는 비닐이었죠. 이걸 실처럼 얇게 만들어서 작물을 짜듯 역으로 씌우게 만들었다 싶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의 칠리위치 매트 제품입니다. "질로 된단을 짜듯 여러 모양과 색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비닐 소재 주방용품 아이디어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때 탄생한 게 탄력 있는 천을 이용한 그릇 '레이보울'이다. 질로 만든 배대에 옷을 입혀서 천을 씌우고 바닥에 달린 클립을 달겨 배대에 고정시키면 오목한 그릇 형태가 만들어진다. "언제든 더러워지면 천만 벗겨서 세탁할 수 있고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칠리위치는 97년 자신의 이름을 딴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레이보울을 생산했다. 레이보울은 미국산업디자인협회상(99년) 등 각종 디자인상을 수상했고 모마(뉴욕현대미술관)숍을 비롯한 여러 디자인숍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했다.



다양한 실내 매트·휴대폰케이스·가방도 내놔

"99년에 아이용 소풍 그릇을 고민하다가 흥미로운 소재를 발견했어요. 야외용 가구를 만들 때 쓰는 비닐이었죠. 이걸 실처럼 얇게 만들어서 작물을 짜듯 역으로 씌우게 만들었다 싶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의 칠리위치 매트 제품입니다. "질로 된단을 짜듯 여러 모양과 색을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비닐 소재 주방용품 아이디어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이때 탄생한 게 탄력 있는 천을 이용한 그릇 '레이보울'이다. 질로 만든 배대에 옷을 입혀서 천을 씌우고 바닥에 달린 클립을 달겨 배대에 고정시키면 오목한 그릇 형태가 만들어진다. "언제든 더러워지면 천만 벗겨서 세탁할 수 있고 색깔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죠." 칠리위치는 97년 자신의 이름을 딴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레이보울을 생산했다. 레이보울은 미국산업디자인협회상(99년) 등 각종 디자인상을 수상했고 모마(뉴욕현대미술관)숍을 비롯한 여러 디자인숍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매트 시

1 인두색 매트를 이용한 식탁은 풀잎의 식사를 연상시킬 만큼 신뜻한 분위기를 낸다. 2 탄력있는 천을 밀로 잡아당겨 오목한 그릇 형태로 만든 '레이보울'. 3 레이스 노즐의 매트와 식탁만 아니라 화장대, 거실 테이블 등에 장식품을 올려놓을 때도 잘 어울린다. 4 반짝이는 은색 매트와 특별한 날에 사용하는 금빛 삼페인, 자족 빛 와인과 잘 어울린다. (사진 칠리위치)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림을 때어오고 싶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사온 복제화를 퍼보는데, 그 여름 저녁을 생각하면 애뜻하고도 신선한 기운이 스며드는 기분이다. 잘 남음이 가진 않지만 아마도 여자에게 명품이란 단어를 향해 "원장님! 허면서 비난을 하지도 하지만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을 터이다. 이틀테면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저급한 돈으로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배의 명품이든 어떤가. 나조차 이젠 시내에서 '2초백'과 '3초백'을 착용하고



이미애의 대처동 교육통신 어, 대처동이 웬일로 한산하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자녀의 시험은 가족 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즘 캣미장원 등에 손님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가게가 썰렁하네요." 가끔 가는 식당 주인에게 슬쩍 물어보니 쓸쓸한 대답만 돌아온다. "요즘 시험기간이잖아요." 대처동의 중고등학교는 19~30살 사이 중간고사를 치른다. 중고생이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집안에서 긴장 모드가 감지된다. 냉정고 문책에는 시험일정표가 붙어 있고, 시험 2주일 전부터는 엄마들이 바깥 모임을 자제한다. 일주일 전부터는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 통화도 하지 않으며 시험기간 중에는 거의 대부분 연락두절이다. 그렇다고 엄마가 집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동네 건강원에서 전교 1등이 먹는다 는 보약 한 개 지어놓았고, 학교 앞 서점에서 각 학교 기술총책 복사본도 구해 놓았다. 학원 결성이나 과외 선생님 섭외는 한 달 전에 끝난 상태다.

자녀의 시험은 가족 행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요즘 캣미장원 등에 손님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가게가 썰렁하네요." 가끔 가는 식당 주인에게 슬쩍 물어보니 쓸쓸한 대답만 돌아온다. "요즘 시험기간이잖아요." 대처동의 중고등학교는 19~30살 사이 중간고사를 치른다. 중고생이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집안에서 긴장 모드가 감지된다. 냉정고 문책에는 시험일정표가 붙어 있고, 시험 2주일 전부터는 엄마들이 바깥 모임을 자제한다. 일주일 전부터는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 통화도 하지 않으며 시험기간 중에는 거의 대부분 연락두절이다. 그렇다고 엄마가 집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동네 건강원에서 전교 1등이 먹는다 는 보약 한 개 지어놓았고, 학교 앞 서점에서 각 학교 기술총책 복사본도 구해 놓았다. 학원 결성이나 과외 선생님 섭외는 한 달 전에 끝난 상태다.

부모 하는 학생도 많다. 그러나 평소 준비하던 경시대회도, 영어 공인 시험도, 동아리 활동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지금은 '내신(학교시험)에 출안 해야 하는 시험인 것이다. 한편 어떤 학생은 시험이 다가와도 너무 심해 1학년 어머니들은 무조건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이를 알고 각 학원은 학교별·과목별 내신 대비 강자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가족을 뒤흔어서 말한다. 시험기간이 되면 동네 전체가 긴장을 한다. 아파트 게시판에는 'OO일부터 OO일까지-시험기간 중에는 인터리어 공사가 불가합니다'라는 관리사무소의 공지가 나온다. 시험기간에는 못 하나 박지 못한다. 수능 보는 날 출근시간을 조정하나라 전체가 기도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하다고 하던데 옆집 대처동의 시험기간도 그런 모습이 축소판 같다. 학생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귀가 후 교복 학원에 가거나 과외수업을 받는다. 물론 스스로 시험공

한데 대부분의 학생은 3월 초에 배운 것을 4월 중순에 처음 들어다린다. 배우기 분명히 배웠는데 알 듯 못 한 상태다. 지금은 '내신(학교시험)에 출안 해야 하는 시험인 것이다. 한편 어떤 학생은 시험이 다가와도 너무 심해 1학년 어머니들은 무조건 학원이나 과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한다. 이를 알고 각 학원은 학교별·과목별 내신 대비 강자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가족을 뒤흔어서 말한다. 시험기간이 되면 동네 전체가 긴장을 한다. 아파트 게시판에는 'OO일부터 OO일까지-시험기간 중에는 인터리어 공사가 불가합니다'라는 관리사무소의 공지가 나온다. 시험기간에는 못 하나 박지 못한다. 수능 보는 날 출근시간을 조정하나라 전체가 기도하는 모습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하다고 하던데 옆집 대처동의 시험기간도 그런 모습이 축소판 같다. 학생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귀가 후 교복 학원에 가거나 과외수업을 받는다. 물론 스스로 시험공

수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내신 관리는 '학기말 성적표'를 겨냥해 해야 한다. 성적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수행평가를 합쳐 학기말 성적표를 나오며 이것이 진짜 성적표다. 그러나 혹여 이번 중간고사에서 쉬웠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분명 기말고사는 어렵게 나올 것이다. 석차로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는 변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날 아이들은 노래방·PC방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어머니들은 상상으로 커피숍·호프집에서 모임을 갖는다. "국어 문제가 어려웠지요." "영어는 무슨 문제가 그래요?" "역시 문법은 철저히 준비해야겠어요." 다음 교육 전문기담계 시험 문제들을 분석하고 다음 시험을 예측한다. 유명 도사였던 대처동은 비로소 다시 살아난다. 전쟁처럼 치렀던 중간고사를 뚫어 한 개 "자~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간밤!" **1** 사본 코칭&멘토링 연구소 대표 miaesky2@naver.com

특별한 날 식탁엔 은색 매트가 어울려요

칠리위치가 제안하는 매트 활용법

1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라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꼭 같은 색깔의 매트를 세트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비슷한 계열 또는 보색 계열의 매트를 골고루 구입해 피플 맞추듯 배열하면 주방과 식탁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2 같은 색이라도 짜임이 다른 것을 여럿 활용하라
비슷한 색이라도 짜임이 다른 매트가 많다. 이것을 골고루 활용하면 식탁 위 색깔은 통일하면서도 느낌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짜임이 다른 매트 두 개를 아슬하게 겹쳐 놓으면 겹쳐진 부분의 색깔 농도가 짙어져 색다른 장식 효과가 나타난다.
3 은색 매트, 금빛 삼페인과 잘 어울려
손님을 초대했을 때 등 특별한 식사 시간에 어떤 매트를 쓸지 고민한다면 '은색'을 추천한다. 화려한 보석을 식탁에 깔듯 화려함이 살아난다. 또 투명 유리잔에 담긴 연한 금색 삼페인과 화이팅의 의미, 친한 자매 및 와인파도 잘 어울린다.
4 꼭 한 가지만 구입한다면 연두색이 유선이다
풀밭에서 즐기는 식탁을 연상하면 된다. 연두색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신선 그릇들과도 잘 어울린다. 식탁 색깔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색·흰색·검은색·은색 등보다 두루난개 조화를 이룬다.



'칠리위치' 창립자 샌디 칠리위치

조현의 '여자는 왜' 명품족 여성을 보는 중도우파 남성의 자세

"어제 명동 나갔는데 정말 초췌해 잔뜩..." 몇 년 전 여직원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침면 무슨 말인가 싶었다. '초췌'이 흔한 명품을 뜻하는 '2초백'인 것도 뒤늦게 알았다. 국내 명품시장이 화끈하다고 한다. 침면 뭐가 명품 브랜드인가 알아보지도 못하던 나조차 이젠 시내에서 '2초백'과 '3초백'을 착용하고

아닐 수 있겠다. 남성을 일부는 명품을 찾는 여성들을 향해 "원장님! 허면서 비난을 하지도 하지만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을 터이다. 이틀테면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저급한 돈으로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배의 명품이든 어떤가. 나조차 이젠 시내에서 '2초백'과 '3초백'을 착용하고

이미지 컨설턴트 한규리씨가 알려주는 좋은 인상 만드는 법

배우 이병헌 미소 부럽죠? 거울 보며 그의 표정 따라 하세요

연애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이미지'는 중요하다. 밝은 표정, 진실이 느껴지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호감을 갖게 된다. 『유전자와 상관없이 연예인처럼 되기』의 저자인 비포엔에프터 네트웍스 한규리(45·사진) 대표는 "표정·목소리 연습을 꾸준히 하면 누구라도 연예인처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15년간 YG·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과 배우 공유·공효진 등의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다. 그는 "스타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새 앨범이 나오고 새 작품에 출연할 때마다 과학적인 변신이 가능한 것은 모두 연습의 결과"라고 말했다. 한 대표에게서 평소 따라 하기를 '표정·목소리 연습' 기초 방법을 들어봤다.

반백·공유·공효진 2NE1 이미지 코치

한 대표는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을 정하고 그 사람의 멋지고 예쁜 표정을 따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표정 연습"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배우 이병헌의 시원하게 웃는 모습이 좋다면 배우들이 어떤 연습을 하듯 흉내를 내라는 것이다. "눈·코·입·눈썹·이마 등 어느 한 구석이라도 '나와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을 역할 모델로 선택하면 연습 결과가 훨씬 좋아진다" 아무리 살피봐도 닮은 구석이 없다 하더라도 상상할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서 평소엔 몰랐던 장점을 발견하는 것도 '역할 모델 정하기'의 목표 중 하나다. 표정 연습을 할 때는 진짜 배우처럼 진심을 담아야 한다. "연기 잘하는 배우일수록 웃는 연기를 할 때 실제로 행복한 생각을 하죠. 시청자가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표정 연습도 같아요."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입 꼬리만 올린 채 부족하다. 눈도 마음도 함께 웃어야 한다.

역할 모델 정해 거울 보며 매일 연습해야

"화가 나기 때문에 인상을 쓰는 게 아니다. 인게 말하겠지만, 그런 그 사람을 사정이고. 그런 그하고 차곡차곡 모든 돈으로 다녀왔기에 후배의 배낭여행이 생애 더 큰 의미를 준 것처럼 여자들의 명품 마련에도 자신의 수고가 깃들어야 더 근사하지 않겠나. 이제 명품 현상을 대하는, 남자들의 중도 무파적 시각이다. 이해 못할 여자들의 문화에 대해서 중도파의 입장이 언제나 속은 편하다. **1** 소설가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는 저자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소비문화에 대해서 다소 뼈

글=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사진=권혁재 사진전문기자 shotgun@joongang.co.kr

EVE 이벤트
여성이 행복할 스타일북

Lte

EVE 아~ 오늘 하루도 부탁해~
나의 24시간, EVE로 새로워지다

pm10:00

LIFE

"내일 주말인데 뭐하러?"

새로 개봉하는 영화나 볼까? 아님...
한편 거가는 곳이라도 여행을 떠날까? 뭐 재밌는 일 없을까?

am7:00

RECIPE

"오늘아대 또 1kg 늘었다..."

밥을 줄자니 배고르고...
뜨겁다 싶어서 국만 먹고...
살 안고도 배부른 다이어트...
뭐가 있을까?

pm5:30

STYLE

"뭘 저 신입사원 옷 입는다"

매일 전 복제 입사할 상한데 그녀...
아~ 나도 캐논은 재밌고...
관리 저 재능 내은 예뻐다
어디 보였는지?
EVE가 찾아와~

am7:30

BEAUTY

"여자의 케일, 뽀아로구나"

아름 공기에 미소한
분데이
올날 뽀아로구나
홍사한 메이크업으로
불 기운 내볼까?

pm12:30

SUCCESS

"첫 프리젠테이션... 열린다!"

입사하고 대외적으로
재능으로 하는 프리
오... 열린다...
잡나...
PT 노사유를 한번 찾아볼까?

am10:30

BE LUCKY

"오늘은 내 날이 나타날까?"

친구들은 하나 둘 결혼한다고
연락 오는데...
도대체 나의 LOVE는
언제 나타날까?
오늘은 언제... 재발!

womanphone.com (우편문답권)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1544-5826**

전국 **Lte** 가입자가 인정한 최고의 속도
JJ라이트 프리미엄 평가단이 극찬한 구매가격

EVE 주교~서랑 받고~
EVE 를 선택하면 찾아오는 사은품!

▶ 2012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 2012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연간 50만원 상당의 여성용품 4개! 레몬
트리, 수어, 해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프리미엄 콘텐츠로 구성된 여성 전용 APP
EVE 를 갖기 무료로 드립니다!

KOREAN AIR LOTTE
여행을 위한 스타일 **EVE** 앱은
대형쇼핑몰 롯데백화점 구매 가능합니다

4 + 제 14692호 40판